

## 한국의 1인 2투표제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 정도와 변화 양상\*

김경일\*\* · 김정도\*\*\*

### • 요 약 •

이 연구는 1인 2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지역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 1인 2투표제가 최초 도입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가장 최근 선거인 제22대 선거까지를 대상으로 지역(체계)의 전국화와 지역 간 동질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8대 총선을 예외로 하면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17대 이후의 선거는 1인 1표 방식의 제13대~16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높은 전국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1인 2투표제가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완화에 기여할 제도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1당과 제2당의 경쟁이 치열하여 양당 점유율 높았던 제17대, 제19대, 제21대~22대 총선은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수값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특성과 이에 대응한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행태는 결과적으로 정치의 전국화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제19대~제22대 총선에서는 충청권 지역을 대표할 지역연고 정당의 약화 혹은 부재로 이들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편중화가 약화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향을 표출할 지역연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시적 지역주의가 완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지역 간 동질성(RHS0)은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도 영호남 사이에서 이질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역주의, 1인 2투표제, 정치의 전국화, 지역 및 지역체계의 전국화, 지역 간 동질성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 7038243).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 교신저자

## I. 서론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1인 1표 투표에 의해 구성되던 비례대표 의석배분 조항이 위헌이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146조 제2항)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하는 것은(제189조 제1항)은 (...)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결정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는 유권자 1명이 지역구의원 선거에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1표를 투표하는 1인 2투표제가 도입된다. 1인 2투표제로의 변화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쉽게 하여 다당제 정당체제를 이끌어 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인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기제로 주목받았다.

이 연구는 1인 2투표제의 여러 제도 효과 중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제17대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전국화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1인 2투표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택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을 배제한 유권자의 지지가 반영됨으로써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규범적 차원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살펴본다.<sup>1)</sup>

지역주의 정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합자료를 활용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특정 지역의 정당 득표율을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의 분포와 차이나는 정도를 측정하여 특정 지역의 전국화(regional nationalization) 정도를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전국화 정도를 활용하여 지역체계의 전국화(regional system nationalization) 정도를 구하여 지역주의의 척도로 삼는다. 둘째, 두 지역 간 정당 지지율을 비교하여 그 동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 간 동질성”(regional homogeneity) 지수를 통해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한다. 만약 지역주의가 각 지역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다른 현상을 의

1) 이 연구에서 지역주의의 완화란 득표율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단지 의석률의 분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밝힌다. 후자는, 굳이 표현하자면, “지역구도의 완화”라고 할 수 있으며, 득표율에 바탕을 둔 정당지지 분포의 동질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역구도의 완화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다.

미한다면, 특정 지역의 정당별 득표율의 분포와 전국적인 정당별 득표율의 분포와의 차이를 측정할 지역(체계)의 전국화와 특정 지역 간의 정당지지 분포의 동질성을 측정할 지역 간 동질성 모두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각종 지수의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제17부터 제22대까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정도를 전국화 지수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제4장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이론적·제도적 함의에 대해 서술한다.

## II. 기존연구의 검토와 전국화 지수의 측정방법

### 1. 기존연구의 검토

정치의 전국화(nationalization of politics)는 정치의 지역성(territoriality of politics)을 넘어서서 투표행태의 지리적 동질성(territorial homogenization)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지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미국 및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의 확장과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그 특징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남미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교하는 연구를 비롯하여,<sup>2)</sup> 보다 최근에는 스위스, 러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었고,<sup>3)</sup> 정당의 전국화의 요인을 비교분석

---

2) Jones, M. P., and Mainwaring, S. 2003. "The Nationalization of Parties and Party Systems: An Empirical Measure and an Application to the Americas", *Party Politics*, Vo1.9, no.2, 139-166; Alemán, E., and Kellam, M. 2008. "The nationalization of electoral change in the Americas", *Electoral Studies*, Vo1.27, no.2, 193-212; Harbers, I. 2017. "Spatial effects and party nationalization: The Geography of partisan support in Mexico", *Electoral Studies*, Vo1.47, 55-66; Chhibber, P., and Kollman, K. 2004. *The Formation of National Party Systems: Federalism and Party Competition in Canada, Great Brita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uyssers, S., Anthony, S. and Lucas, C. 2020. "Nation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the Canadian Party Syste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1.53, no.1, 151-169.

3) Bochsler, D., Sean M., and Julian B. 2016. "An Ever Closer Union? The Nationalis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Switzerland, 1991~2015",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Vo1.22, no.1, 29-40; Gaivoronsky, Y. 2019. "The dual logic of Russia's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1.52, no.4, 323-330; Golosov, G. 2016(a). "Party system nationalisation in Sub-Saharan Africa: Empirical evidence and an explanatory model",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1.19, no.3, 231-248.

하는 연구,<sup>4)</sup> 그리고 정당의 전국화를 측정하는 지수의 개발과 그 타당성에 관한 논의 등 매우 다양하다.<sup>5)</sup>

국외 연구가 정당의 전국화와 이와 관련된 지수개발이 매우 활발한 것과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 정당의 전국화와 이와 관련된 지역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연고정당의 득표율의 증감을 기준으로 전체적 지역주의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알포드 지수(Alford index)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방식에 근거한 정당의 전국화지수를 구하여 각 정당의 지역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sup>6)</sup>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알포드 지수나 지니계수보다 측정의 수월성이 높은 코사인제곱 지수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sup>7)</sup> 이들 연구는 코사인제곱 지수를 활용하여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차원에서 지역주의의 유형과 그 강도, 그리고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 등을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당의 전국화를 측정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의 지역주의와 정치의 전국화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정당체계의 사회적 기반이 매우 공고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전국화를 위한 내적 추동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

- 
- 4) Morgenstern, S., Swindle, S. M., and Castagnola, M. 2009. "Party Nationalization and Institutions", *Journal of Politics*, Vo1.71, no.4, 1322-1341; Golosov, G. 2016(b). "Factors of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1.37, no.2, 246-260.
  - 5) Bochsler, D. 2010. "Measuring Party Nationalisation: A New Gini-Based Indicator that Corrects for the Number of Units," *Electoral Studies*, Vo1.29, no.1, 155-168; Golosov, G. 2016(c).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The Problems of Measurement with an Application to Federal States", *Party Politics*, Vo1.22, no.3, 278-288.
  - 6)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서울: 후마니타스; 강명세. 2005.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249-270; 강명세. 2012. "제19대 총선 불평등한 선거제도와 전국적 정당체계의 도전", 『국가전략』, 제18권 제2호, 5-27.
  - 7) 정준표·김정도. 2013.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정치의 전국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2호, 107-132; 김정도. 2014. "선거와 정치의 전국화: 제5회 지방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83-102; 정준표. 2014.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의 지역주의의 효과",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129-160; 정준표. 2015.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적 시작과 그 변화 양상",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83-119. 한편 김진하(2010, 99)의 지적처럼 지역투표가 영호남만의 문제와 같이 두 정당과 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알포드 지수 사용도 타당하지만, 지역주의가 다국화되는 다당제 아래서, 지역과 지역정당이 각각 3개 이상 되면, 알포드 지수는 지역투표를 보여주는 전체지수로는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지니계수에 근거한 정당의 전국화지수를 구하는 방식은 선거구(지역)의 득표율의 순으로 자료를 배열해야 할뿐만 아니라 상당한 계산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코사인제곱지수에 비해 측정의 수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지역체계의 전국화를 측정할 때는 지니계수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코사인제곱지수 및 이에 근거한 지수를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이다(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 89-114).

하면서, 한국 정치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개인 및 선거과정 차원을 넘어 외부 제도 차원의 변화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8)</sup>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정당(체계)의 전국화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선거구 포함)에 걸쳐 얼마나 유사한 지지를 받는가를 파악하여 정당 지지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확산”(dispersion) 차원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코사인제공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한다.<sup>9)</sup>

## 2. 지역(체계)의 전국화의 측정방법<sup>10)</sup>

이하에서는 우선 지역주의에 대한 개념이 접근법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역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는 국내 정치학 연구에서 단일한 개념으로 합의되어 사용되기보다는, 논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주의를 단순한 지역별 득표 차원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감정, 정당 일체감, 지역 정당의 형성 여부, 정당체계의 구조,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등이 결합된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 왔다.<sup>11)</sup> 즉,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심리적 유대가 정치적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미시적 수준의 유권자 행태와 거시적 수준의 선거결과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이러한 복합적 개념 가운데, 본 연구는 지역주의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의미 전체를 포괄하기보다, 지역주의가 선거결과에 어떠한 형태로 집합적으로 표출되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은 개별 유권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지역감정 자체보다, 지역별 정당 지지 분포가 얼마나 균등하게 나타나는지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의를 “정

- 
- 8) 조영호·김용철, 2019. “다차원적 지역주의와 한국의 지역정당체제”, 『조사연구』, 제20권 제43호, 49-83.
- 9) 정당체계의 전국화는 정태적 전국화와 동태적 전국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정태적 전국화는 지지분포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는 확산 차원의 접근방법과, 특정 집약수준에서 정당의 수가 다른 집약수준에서의 정당의 수보다 어느 정도 많아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당지지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팽창”차원에서의 방법론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표·김정도, 2013.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정치의 전국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제2호를 참조.
- 10) 이하의 논의는 이하는 정준표(2014, 2015)와 김정도(2014)의 기본적 논의 내용을 활용하되 이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11) 이 외에도 최근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TK·PK 분화, 경계지역 효과, 정서적 내집단 편향 등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며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도 주목할만하다.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기우·정민석·이현우, 2018. “영·호남 지역주의의 지속과 변화: 지역감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3호, 1-24; 김기동·이재목, 2022. “한국 유권자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56권 제1호, 123-160; 도묘연, 2024. “영남 지역주의 투표의 분화와 지속: 22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당학회보』, 제23집 제4호, 115-151; 이재목, 2025. “지역주의의 재편과 공간적 분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 가능성”, 『문화와 정치』, 제12권 제3호, 371-403.

당 지지와 득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선거 결과상의 지역적 편재 현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지역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전국화 지수와 동질성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거시적 차원의 지역주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제한적 정의이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지역주의의 정치사회적 원인이나 유권자 개인의 지역주의적 성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당 지지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국화 지수 및 동질성 지수는 지역주의의 원인을 설명하는 지표라기보다, 지역주의가 선거 결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지속되는지를 파악하는 경험적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전국화 수준의 변화는 선거제도뿐 아니라 정당체계의 변화, 선거 당시의 정치환경, 정권 평가, 전국적 이슈의 형성, 정당 간 경쟁구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화 수준의 변화 자체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되, 제도적 효과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지역주의가 일반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의석)율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현상을 의미하고<sup>12)</sup>, 개별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미시적 지역주의)가 모여 각 정당의 지역별 득표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지역주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역별 정당지지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측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sup>13)</sup>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의 정당득표율의 분포가 전국적인 정당득표율의 분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하여 특정 지역의 전국화(region nationalization score, *RNS*)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전국화 정도를 각 지역의 인구수, 선거인수, 혹은 유효투표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전국화 정도를 가중평균 하여 지역체계의 전국화(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RSN*) 정도를 구하여 이(아래  $RSN(v)$ 에 해당)를 지역주의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sup>14)</sup>

이 글에서는 두 분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코사인제곱지수를 활용한  $\theta$  지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12) 아사바 유키. 2008. “집합자료를 이용한 17대 대선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113-150.

13) 정준표. 2015.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적 시작과 그 변화 양상”,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86.

14) 김정도. 2014. “선거와 정치의 전국화: 제5회 지방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88.

다.  $\mathbf{x} = (x_1, x_2, \dots, x_j, \dots, x_n)$ ,  $\mathbf{y} = (y_1, y_2, \dots, y_j, \dots, y_n)$ 라 할 때,  $\mathbf{x}$ 와  $\mathbf{y}$ 는 각각  $R^n$  공간상의 한 점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일정한 방향을 지닌 벡터로도 볼 수 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두 벡터  $\mathbf{x}$ 와  $\mathbf{y}$ 가 이루는 각을  $\theta^\circ$ 라 할 때 코사인제곱지수는  $\cos^2\theta^\circ$ 가 된다.

이를  $\cos^2(\mathbf{x}, \mathbf{y})$ 라 하면,  $\cos^2(\mathbf{x}, \mathbf{y}) = (\sum_{j=1}^n x_j y_j)^2 / (\sum_{j=1}^n x_j^2 \sum_{j=1}^n y_j^2)$ 가 된다.<sup>15)</sup>  $\mathbf{x}$ 와  $\mathbf{y}$ 가 일치하여  $\theta$ 가 0일 때는  $\cos^2(\mathbf{x}, \mathbf{y})$ 는 1이 되고  $\mathbf{x}$ 에서  $x_j > 0$ 이라면  $\mathbf{y}$ 에서  $y_j = 0$ 이어서  $\theta$ 가 90일 때는  $\cos^2(\mathbf{x}, \mathbf{y})$ 는 0이 되어  $\cos^2\theta^\circ$ 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게 되어 특정 한계(specified limits)에서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도 연속성(continuity), 가상적 지역단위 및 정당의 존재로부터의 무관성(irrelevance of virtual territorial units and parties), 대칭성(symmetry), 규모불변성(scale invariance), 달톤의 이전의 원칙(Dalton's principle of transfers), 평등의 최적성(optimality of equality) 등의 여러 바람직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중 규모불변성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어떤 양수  $a$ 에 대해서도  $\cos^2(\mathbf{x}, \mathbf{y}) = \cos^2(a\mathbf{x}, a\mathbf{y})$ 를 만족한다는 것이며,  $\cos^2(\mathbf{x}, \mathbf{y}) = \cos^2(\mathbf{y}, \mathbf{x})$ 을 만족시키는 대칭성과 함께 코사인제곱지수의 계산을 아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cos^2(\mathbf{x}, \mathbf{y})$ 의 값을 알면 두 벡터사이의 각  $\theta^\circ$ 를 구할 수 있고  $\theta$ 지수는  $1 - \frac{\theta^\circ}{90^\circ}$ 에 해당한다. 이 값 역시 0과 1 사이에 있게 된다.<sup>16)</sup>

이 코사인제곱지수 및  $\theta$ 지수에 근거하여 각종 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  $n$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하고, 무소속 후보를 각각 하나의 정당으로 간주할 때,  $p_i^j$ 를  $i$ 지역에서 얻은 (무소속을 포함한)  $j$ 정당의 득표율이라 하면  $\mathbf{p}_i = (p_i^1, p_i^2, \dots, p_i^j, \dots, p_i^n)$ 는  $i$ 지역에서의 무소속을 포함한 각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를 의미한다.  $\mathbf{P}^j$ 를 (무소속을 포함한)  $j$ 정당의 전국적 득표율이라 하면,  $\mathbf{P}^j = (P^1, P^2, \dots, P^j, \dots, P^n)$ 는 전국적으로 파악한 각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가 된다.  $i$ 지역의 지역의 전국화 지수값(regional nationalization score)  $RNS_c^i$ 와  $RNS_\theta^i$ 는 다음과 같다.

$$(1) RNS_c^i = \cos^2(\mathbf{p}_i, \mathbf{P}^j)$$

15) Koppel, M. and Diskin, A. 2009. "Measuring Disproportionality, Volatility, and Malapportionment: Axiomatization and Solutions", *Social Choice and Welfare*, Vol.33, 281-286.

16) 김정도. 2014. "선거와 정치의 전국화: 제5회 지방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88.

$$(2) RNS_{\theta}^i = 1 - \frac{\theta^{\circ}}{90^{\circ}}$$

전국에 D개의 지역이 존재하고, i지역의 유효투표수를  $V_i$ , 전국의 유효투표수를  $V$ ,  $Wv_i (= V_i/V)$ 를 전국의 유효투표수에서 차지하는 i지역의 유효투표수의 비율이라 하면 각 지역의 전국화 지수값을 활용하여 유효투표수로 가중한 지역체계의 전국화 정도(RSN: Regional System Nationalization)를 아래와 같이 측정할 수 있다.<sup>17)</sup>

$$(3) RSN_c(v) = \sum_{i=1}^D Wv_i RNS_c^i \quad (RNS_c^i \text{의 유효투표 가중평균})$$

$$(4) RSN_{\theta}(v) = \sum_{i=1}^D Wv_i RNS_{\theta}^i \quad (RNS_{\theta}^i \text{의 유효투표 가중평균})$$

전국화 지수값은 0에서 1사이에 존재하며, 1에 가까이 갈수록 득표의 분포가 동질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 값이 0에 가까이 갈수록 지역주의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두 지역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를 비교하여 지역 간 정당 득표율의 분포가 어느 정도 동질적인가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mathbf{p}_i = (p_i^1, p_i^2, \dots, p_i^j, \dots, p_i^n)$ 를 i지역에서의 무소속을 포함한 각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  $\mathbf{p}_k = (p_k^1, p_k^2, \dots, p_k^j, \dots, p_k^n)$ 를 k지역에서의 무소속을 포함한 각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라 하면, 이 지역 간 동질성 지수값(regional homogeneity score)  $RHS^{ik}$ 는 다음과 같다.<sup>18)</sup>

$$(5) RHS_c^{ik} = \cos^2(\mathbf{p}_i \cdot \mathbf{p}_k)$$

$$(6) RHS_{\theta}^{ik} = 1 - \frac{\theta^{\circ}}{90^{\circ}}$$

이하에서는  $\theta$ 지수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정당별 득표분포가 전국적 정당별 득표분포

17) 정준표. 2014.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의 지역주의의 효과”,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137.

18) 정준표. 2014.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의 지역주의의 효과”,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138.

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 $RNS_{\theta}$ )하고, 이를 유효투표수를 활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아래  $RNS_{\theta}(v)$ 에 해당)을 지역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수값으로 활용한다.<sup>19)</sup> 또한 두 지역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의 분포의 동질성 정도는 지역 간 동질성 지수값( $RHS_{\theta}$ )을 활용한다.  $\theta$ 지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코사인제곱지수의 값의 차이가 너무 작아 그 차이를 실감하기 어려운 반면, 두 벡터 사이의 각을 활용하는  $\theta$ 지수의 값은 직관적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 Ⅲ. 1인 2투표제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의 정도와 변화 양상

#### 1. 민주화이후 총선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아래 <표 1>은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인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 획득 정당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후 전개될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제시한다.

<표 1> 제17~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 및 의석수

제17대 총선(2004년)			제18대 총선(2008년)		
정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비례) 의석수	정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비례) 의석수
한나라당	0.379	100(21)	통합민주당	0.289	66(15)
새천년민주당	0.080	5(4)	한나라당	0.434	131(22)
열린우리당	0.420	129(23)	자유선진당	0.057	14(4)
자유민주연합	0.027	4	민주노동당	0.034	2(3)
국민통합21	0.030	1	창조한국당	0.004	1(2)
민주노동당	0.043	2(8)	친박연대	0.037	6(8)
무소속	0.046	2	무소속	0.111	25
합계		243(56)	합계		245(54)

19) 코사인제곱지수( $RNS_c$ )와  $\theta$ 지수( $RNS_{\theta}$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heta = 45^\circ$ 일 때 두 값은 0.5로 동일하고, 그 이하에서는  $RNS_{\theta} \leq RNS_c$ 가 성립하고 그 이상일 때는  $RNS_{\theta} \geq RNS_c$ 가 성립한다.

20) 정준표, 2015.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적 시각과 그 변화 양상”,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91.

제19대 총선(2012년)			제20대 총선(2016년)		
정당(비례)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비례) 의석수	정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비례) 의석수
새누리당	0.433	127(25)	새누리당	0.383	105(17)
민주통합당	0.379	106(21)	더불어민주당	0.370	110(13)
자유선진당	0.022	3(2)	국민의당	0.149	25(13)
통합진보당	0.060	7(6)	정의당	0.016	2(4)
무소속	0.094	3	무소속	0.070	11
			합계		253(47)
합계		246(54)			
제21대 총선(2020년)*			제22대 총선(2024년)**		
정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비례) 의석수	정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비례)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0.499	163(17)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0.505	161(14)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0.415	84(19)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0.451	90(18)
정의당	0.017	1(5)	개혁신당	0.007	1(2)
무소속	0.039	5	진보당	0.010	1
			새로운미래	0.007	1
합계		253(41)	합계		254(34)

\* 제21대 총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선거만 각각 3석 획득

\*\* 제22대 총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에서만 12석 획득

먼저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최초의 선거이다. 이 선거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한 달여 만에 실시되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지역구 점유율은 이전 선거보다 크게 높아져 약 80%에 달할 만큼 두 정당 간의 경쟁은 치열했다.<sup>21)</sup>

앞의 <표 1>에서 제17대 총선결과를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152석(지역구 129석+비례 23석)을 획득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진보 정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도권과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하면서

21) 참고로 제13대부터 제16대 총선까지의 제1당과 제2당의 지역구 득표의 양당점유율은 제13대 57.8%, 제14대 67.7% 제15대 59.8% 제16대 74.9%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6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천년민주당의 영남 지역 득표율이 대구 10.9%, 경북 14.7%, 부산 15.0%, 경남 11.8%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영남지역 득표율이 대구 26.8%, 경북 25.8%, 부산 38.9%, 경남 34.4%로 크게 상승한 결과를 보여 준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으로 총 121석(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21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원내 제2당이 되었다.

아래 <표 2>는 제17대 총선의 비교를 위해 이전 민주화 이후 1인 1표제로 실시된 제13대부터 제16대 총선까지의 지역구 선거의 지역( $RNS_{\theta}$ ) 및 지역체계 전국화지숫값( $RSN_{\theta}(v)$ )과 두 지역간의 동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최소동질성 지수값( $\min RNS_{\theta}$ )을 표의 왼편에 나타낸 것이다.<sup>22)</sup> <표 2>의 오른편에 있는 제17대 총선의 지역의 전국화지수( $RSN_{\theta}$ )를 지역적으로 보면, 예상대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고,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충남(0.550)과 대전(0.704)의 전국화지수 값이 영남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총선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이전 선거에 비해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전히 대전 14.5%, 충남 23.8%로 상당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충청권에서 일정한 지지를 확보해, 전국적 득표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역체계 전국화지숫값(0.835)은 1인 1표제로 실시된 제13대부터 제16대 총선의 지숫값(13대=0.721, 14대=0.803, 15대=0.729, 16대=0.766)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국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한편, 최소동질성 지수값( $\min RNS_{\theta}$ )을 아래 <표 2>의 제13대~제16대와 <표 3>의 제17대 총선을 비교해 보면, 제17대 총선의 최소동질성 지수값은 전남-대구의 0.217로 1인 1표제로 실시된 제13대~제16대 총선의 영호남 간에서 나타났던 최소동질성 지숫값[13대=0.057(광주-부산), 14대=0.162(광주-경북), 15대=0.056(광주-대구), 16대=0.136(광주-대구)]보다 크게 높아져 영호남 간 지역주의가 이전 선거보다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대 총선은 정치의 전국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1인 2투표제가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초 선거라 할 수 있다.

22) 민주화 이후의 선거인 제13대부터 제16대까지의 지역체계의 전국화 지수값( $RSN_{\theta}(v)$ ) 및 최소동질성 지수값( $RSN_{\theta}$ )은 정준표·김정도(2013) 및 정준표(2014)를 참조.

23) 본 연구에서 지역체계의 전국화 정도는 단순평균으로 측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규모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유효투표 가중평균인  $RSN_{\theta}(v)$ 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표 2〉 제13대~제16대 vs 제17대 총선의 지역 및 지역체계의 전국화

지역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지역구		
	RNS $\theta$	RNS $\theta$	RNS $\theta$	RNS $\theta$	지역구수	유효투표비율	RNS $\theta$	
서울	0.853	0.895	0.880	0.911	서울	48	0.22	0.964
부산	0.617	0.787	0.648	0.655	부산	12	0.08	0.846
대구	0.725	0.733	0.514	0.640	대구	49	0.05	0.715
인천	0.906	0.892	0.941	<b>0.956</b>	인천	8	0.05	0.946
광주	<b>0.317</b>	<b>0.465</b>	<b>0.415</b>	<b>0.484</b>	광주	8	0.03	0.485
대전		0.771	0.528	0.624	대전	10	0.03	0.704
울산				0.560	울산	6	0.02	0.715
경기	<b>0.931</b>	<b>0.950</b>	<b>0.942</b>	0.945	경기	11	0.20	<b>0.968</b>
강원	0.764	0.710	0.713	0.947	강원	13	0.03	0.919
충북	0.671	0.886	0.627	0.732	충북	7	0.03	0.854
충남	0.574	0.849	0.527	0.543	충남	12	0.04	0.550
전북	0.475	0.697	0.566	0.499	전북	15	0.04	0.536
전남	0.420	0.625	0.498	0.501	전남	18	0.04	<b>0.463</b>
경북	0.724	0.684	0.639	0.695	경북	17	0.06	0.731
경남	0.716	0.716	0.632	0.651	경남	6	0.07	0.834
제주	0.645	0.569	0.696	0.859	제주	3	0.01	0.931
전국					전국	243	1	
RNS $\theta$ :	0.667	0.749	0.651	0.700			RNS $\theta$ :	0.760
RNS $\theta(v)$ :	<b>0.721</b>	<b>0.803</b>	<b>0.729</b>	<b>0.766</b>			RNS $\theta(v)$ :	<b>0.835</b>
minRNS $\theta(v)$ :	0.317	0.465	0.415	0.484			minRNS $\theta(v)$ :	0.463
maxRNS $\theta(v)$ :	0.931	0.950	0.942	0.956			maxRNS $\theta(v)$ :	0.968
minRHS $\theta$	<b>0.057</b>	<b>0.162</b>	<b>0.056</b>	<b>0.136</b>				
	(광주-부산)	(광주-경북)	(광주-대구)	(광주-대구)				

〈표 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간 동질성(RHS $\theta$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b>1.000</b>	0.857	0.732	0.927	0.478	0.674	0.709	0.956	0.933	0.822	0.522	0.520	0.459	0.745	0.839	0.913
부산	0.857	<b>1.000</b>	0.850	0.845	0.336	0.604	0.731	0.854	0.907	0.752	0.465	0.392	0.318	0.864	0.930	0.836
대구	0.732	0.850	<b>1.000</b>	0.707	0.224	0.490	0.687	0.716	0.784	0.613	0.377	0.254	0.217	0.938	0.842	0.691
인천	0.927	0.845	0.707	<b>1.000</b>	0.472	0.690	0.736	0.957	0.907	0.856	0.533	0.537	0.444	0.726	0.844	0.941
광주	0.478	0.336	0.224	0.472	<b>1.000</b>	0.507	0.327	0.475	0.420	0.494	0.441	0.799	0.914	0.236	0.331	0.474
대전	0.674	0.604	0.490	0.690	0.507	<b>1.000</b>	0.541	0.691	0.644	0.812	0.817	0.595	0.475	0.507	0.595	0.705
울산	0.709	0.731	0.687	0.736	0.327	0.541	<b>1.000</b>	0.713	0.733	0.655	0.432	0.374	0.300	0.702	0.774	0.699
경기	0.956	0.854	0.716	0.957	0.475	0.691	0.713	<b>1.000</b>	0.921	0.854	0.532	0.535	0.451	0.732	0.839	0.953
강원	0.933	0.907	0.784	0.907	0.420	0.644	0.733	0.921	<b>1.000</b>	0.795	0.496	0.466	0.402	0.797	0.890	0.889
충북	0.822	0.752	0.613	0.856	0.494	0.812	0.655	0.854	0.795	<b>1.000</b>	0.647	0.594	0.459	0.633	0.740	0.879
충남	0.522	0.465	0.377	0.533	0.441	0.817	0.432	0.532	0.496	0.647	<b>1.000</b>	0.504	0.416	0.392	0.461	0.541
전북	0.520	0.392	0.254	0.537	0.799	0.595	0.374	0.535	0.466	0.594	0.504	<b>1.000</b>	0.735	0.272	0.384	0.551
전남	0.459	0.318	<b>0.217</b>	0.444	0.914	0.475	0.300	0.451	0.402	0.459	0.416	0.735	<b>1.000</b>	0.225	0.310	0.445
경북	0.745	0.864	0.938	0.726	0.236	0.507	0.702	0.732	0.797	0.633	0.392	0.272	0.225	<b>1.000</b>	0.860	0.710
경남	0.839	0.930	0.842	0.844	0.331	0.595	0.774	0.839	0.890	0.740	0.461	0.384	0.310	0.860	<b>1.000</b>	0.818
제주	0.913	0.836	0.691	0.941	0.474	0.705	0.699	0.953	0.889	0.879	0.541	0.551	0.445	0.710	0.818	<b>1.000</b>
전국	0.964	0.846	0.715	0.946	0.485	0.704	0.715	<b>0.968</b>	0.919	0.854	0.550	0.536	<b>0.463</b>	0.731	0.834	0.931
minRHS $\theta$ :	0.217	전남, 대구														

## 2. 제18대~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 1)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2008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개월이 채 안된 소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밀월기간(honeymoon period)에 실시되었다. 선거 초기 이러한 기간효과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으나,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 153석(지역구 131+비례 22석)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충청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의 선전,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친박연대 후보의 당선 등으로 범보수계 정당이 거의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역대 가장 낮은 지역구 득표율(29%)을 기록하면서 지역구에서 66석(전체 81석, 비례 15석)만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제18대 총선은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양당 점유율이 71%에 그쳤고, 특히 무소속 당선자의 득표율이 민주화 이후의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1.08%를 기록하는 등 각 지역에서 정당 간 득표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선거라 할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선거결과를 반영하듯, 아래 <표 4>를 보면, 제18대 총선의 지역체계의 전국화( $RSN_{\theta}(v)$ )지숫값(0.773)은 제17대 총선(0.83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각 지역의 전국화( $RNS_{\theta}$ )의 경우, 영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역의 전국화지숫값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18대 총선은 충청권 지역에서 자유선진당의 선전으로 이들 지역의 득표율 분포가 전국적인 득표율의 분포와 차이를 보이며, 충남과 대전 지역의 전국화 지숫값( $RNS_{\theta}$ )이 각각 0.460과 0.527로 낮아져 전국화지숫값이 가장 낮았던 광주(0.424), 전남(0.424), 전북(0.444) 등의 호남지역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아래 <표 5>에서 보듯, 제18대 총선에서도 영호남 지역인 대구와 광주 사이의 이질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min RHS_{\theta}=0.067$ )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8대 총선은 <표 5>에서 보듯 영호남 간의 정치적 지지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충남·대전과 타 지역 간의 정치적 지지의 이질성도 크게 높아지는 등 영남, 호남, 충청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제17대 총선에 비해 한층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전국화 수준이 낮게 나타난 선

24)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제15대(12.4%) > 제14대(11.50%) > 제18대(11.08%) > 제19대(9.40%) > 제16대(9.38%) > 제20대(7.00%) > 제22대(5.05%) > 제13대(4.75%) > 제17대(4.56%) > 제21대(3.91%) 순이다.

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제18대~제20대 총선의 지역 및 지역체계의 전국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지역구수	유효투표비율	RNS <sub>θ</sub>	지역	지역구수	유효투표비율	RNS <sub>θ</sub>	지역	지역구수	유효투표비율	RNS <sub>θ</sub>
서울	48	0.21	0.933	서울	48	0.21	0.935	서울	49	0.21	0.921
부산	12	0.07	0.750	부산	12	0.07	0.917	부산	18	0.07	0.867
대구	51	0.05	0.616	대구	52	0.05	0.710	대구	12	0.05	0.631
인천	8	0.05	<b>0.936</b>	인천	9	0.05	0.950	인천	13	0.05	<b>0.939</b>
광주	8	0.03	<b>0.424</b>	광주	8	0.03	0.497	광주	8	0.03	<b>0.409</b>
대전	10	0.03	0.527	대전	11	0.03	0.755	대전	7	0.03	0.912
울산	6	0.02	0.603	울산	6	0.02	0.641	울산	6	0.02	0.570
경기	11	0.21	0.934	경기	11	0.22	<b>0.957</b>	세종	1	0.00	0.475
강원	12	0.03	0.861	강원	11	0.03	0.902	경기	60	0.24	0.920
충북	8	0.03	0.865	충북	8	0.03	0.939	강원	8	0.03	0.820
충남	12	0.04	0.460	충남	12	0.04	0.691	충북	8	0.03	0.878
전북	15	0.04	0.444	전북	15	0.04	0.543	충남	11	0.04	0.930
전남	18	0.04	0.429	전남	18	0.04	<b>0.489</b>	전북	10	0.04	0.551
경북	17	0.06	0.647	경북	16	0.06	0.629	전남	10	0.04	0.554
경남	6	0.07	0.712	경남	6	0.07	0.750	경북	13	0.05	0.558
제주	3	0.01	0.763	제주	3	0.01	0.723	경남	16	0.06	0.820
전국	245	1		전국	246	1		제주	3	0.01	0.872
								전국	253	1	
		RSN <sub>θ</sub> :	0.681			RSN <sub>θ</sub> :	0.752			RSN <sub>θ</sub> :	0.743
		RSN <sub>θ</sub> (v):	<b>0.773</b>			RSN <sub>θ</sub> (v):	<b>0.831</b>			RSN <sub>θ</sub> (v):	<b>0.821</b>
		minRNS <sub>θ</sub> (v):	0.424			minRNS <sub>θ</sub> (v):	0.489			minRNS <sub>θ</sub> (v):	0.409
		maxRNS <sub>θ</sub> (v):	0.936			maxRNS <sub>θ</sub> (v):	0.957			maxRNS <sub>θ</sub> (v):	0.939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통합을 통한 단일후보에 성공하고, 같은 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여야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또한, 의원정수가 300석으로 늘어나고 헌정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SNS 사용자가 급증하는 등 선거환경의 변화도 큰 선거였다. 선거결과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수 획득에 성공했고,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했다.

제19대 총선은 제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지역구 득표의 양당 점유율이 81%에 이를 정도로 두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전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 선거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정당지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의 전국화지숫값( $RNS_{\theta}$ )이 이전 선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제19대 총선은 위 〈표 5〉에서 보듯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숫값( $RSN_{\theta}(v) = 0.831$ )이 크게 상승하여 높은 수준의 전국화를 이룬 선

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 5>의 제18대 총선과 아래 <표 6>의 제19대 총선의 지역 간 동질성( $RHS_{\theta}$ )을 비교해보면, 제19대 총선은 영호남 간 이질성이 상당히 좁혀진 선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제18대 총선의 영호남 간 동질성( $RHS_{\theta}$ )의 경우, 대구-광주 0.067, 대구-전북 0.088, 대구-전남 0.070, 경북-광주 0.094, 경북-전남 0.116, 경북-전북 0.098로 나타난 반면, 제19대 총선에서는 대구-광주 0.233, 대구-전북 0.263, 대구-전남 0.212, 경북-광주 0.165, 경북-전남 0.187, 경북-전북 0.139( $\min RHS_{\theta}$ )로 영호남 간 이질성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9대 총선에서는 충청권 지역의 전국화 지수값( $RNS_{\theta}$ )이 제18대 총선에 비해 크게 개선된다. 제18대 총선의  $RNS_{\theta}$ 의 경우 대전 0.575, 충북 0.865, 충남 0.530으로 나타난 반면, 제19대 총선의  $RNS_{\theta}$ 는 대전 0.807, 충북 0.960, 충남 0.777로 이전 선거에서 지역 전국화지수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제19대 총선에서는 충청권 지역에 기반한 자유선진당이 쇠락하면서 더 이상 충청권 지역, 특히 충북에 있는 선거구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5)</sup>

제19대 총선은 앞서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수값과 지역 간 동질성지수값 등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의 전국화 차원에서 역대 선거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시적 수준의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하여 창당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1여 3야의 야권 분열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2000년 제16대 총선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다. 득표율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점유율은 75%로 제19대 총선(81%)보다 낮고, 국민의당이 선전하며 지역구 득표율 15%를 획득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호남에서의 승리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2위를

25) 이 글의 분석 차원은 개인 수준의 미시적 지역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미시적 지역주의)가 모여 각 정당의 지역별 득표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지역주의의 정도와 변화과정을 전국화 지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 수준의 미시적 지역주의에 대한 추론은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거시적 수준의 분석결과를 개인적 수준으로 환원하여 유추 해석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준표, 2015.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적 시각과 그 변화 양상”,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86-87을 참조.

기록하면서 총 의석수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원내 제3당이 되는데, 원내 제3당이 원내교섭단체 20석 이상을 획득한 것은 1996년 제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었다.<sup>26)</sup>

위 <표 4>의 제20대 총선의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숫값(0.821)은 제19대 총선의 지숫값(0.831)과 비교하여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표 7>의 제20대 총선의 최소 동질성지숫값( $misRHS_{\theta}=0.080$ )은 제19대 총선과 비교하여 광주-경북 사이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경북을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간의 동질성 지숫값의 차이가 큰 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영호남의 지지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높다. 지역 간 동질성 차원에서 보면, 제20대 총선에서는 영남 지역 내의 작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북에 비해 대구와 호남 사이의 정당지지의 이질성이 더 완화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경북-광주 0.080 vs 대구-광주 0.143, 경북-전남 0.189 vs 대구-전남 0.261, 그리고 경북-전북 0.190 vs 대구-전북 0.273으로 경북에 비해 대구-호남 간 동질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보수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높은 지지율(62.3%)로 당선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대구 지역의 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과 관련성이 높다.

한편, 제20대 총선에서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인천, 서울, 경기 등 전통적으로 전국화 수준이 높은 지역과 함께 충남과 대전 지역의 전국화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택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정준표 2015, 110). 예컨대,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남과 대전의 전국화지숫값( $RNS_{\theta}$ )은 각각 0.691과 0.755였지만, 충청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주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제20대 총선의 경우 그 값이 충남 0.930, 대전 0.912로 크게 높아져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향을 표출할 지역연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시적 지역주의가 완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역사관 국회의원선거사 참조(<http://museum.nec.go.kr/museum2018/main/main.do>)

한국의 1인 2투표제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 정도와 변화 양상(김경일·김정도)

〈표 5〉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간 동질성( $RHS_{\theta}$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b>1.000</b>	0.715	0.584	0.932	0.449	0.483	0.575	0.961	0.833	0.838	0.411	0.470	0.455	0.620	0.684	0.780
부산	0.715	<b>1.000</b>	0.802	0.731	0.209	0.426	0.741	0.709	0.736	0.646	0.410	0.227	0.212	0.800	0.833	0.555
대구	0.584	0.802	<b>1.000</b>	0.600	0.067	0.357	0.751	0.575	0.624	0.518	0.371	0.088	0.070	0.844	0.801	0.419
인천	0.932	0.731	0.600	<b>1.000</b>	0.422	0.506	0.599	0.919	0.856	0.840	0.443	0.441	0.426	0.641	0.708	0.759
광주	0.449	0.209	<b>0.067</b>	0.422	<b>1.000</b>	0.320	0.103	0.466	0.362	0.490	0.191	0.818	0.849	0.094	0.170	0.587
대전	0.483	0.426	0.357	0.506	0.320	<b>1.000</b>	0.323	0.488	0.535	0.629	0.854	0.336	0.323	0.365	0.386	0.480
울산	0.575	0.741	0.751	0.599	0.103	0.323	<b>1.000</b>	0.565	0.612	0.501	0.337	0.106	0.098	0.749	0.818	0.435
경기	0.961	0.709	0.575	0.919	0.466	0.488	0.565	<b>1.000</b>	0.824	0.849	0.411	0.486	0.472	0.607	0.672	0.794
강원	0.833	0.736	0.624	0.856	0.362	0.535	0.612	0.824	<b>1.000</b>	0.800	0.488	0.381	0.366	0.663	0.718	0.693
충북	0.838	0.646	0.518	0.840	0.490	0.629	0.501	0.849	0.800	<b>1.000</b>	0.538	0.510	0.496	0.545	0.601	0.783
충남	0.411	0.410	0.371	0.443	0.191	0.854	0.337	0.411	0.488	0.538	<b>1.000</b>	0.208	0.194	0.379	0.386	0.380
전북	0.470	0.227	0.088	0.441	0.818	0.336	0.106	0.486	0.381	0.510	0.208	<b>1.000</b>	0.835	0.116	0.183	0.599
전남	0.455	0.212	0.070	0.426	0.849	0.323	0.098	0.472	0.366	0.496	0.194	0.835	<b>1.000</b>	0.098	0.170	0.591
경북	0.620	0.800	0.844	0.641	0.094	0.365	0.749	0.607	0.663	0.545	0.379	0.116	0.098	<b>1.000</b>	0.823	0.451
경남	0.684	0.833	0.801	0.708	0.170	0.386	0.818	0.672	0.718	0.601	0.386	0.183	0.170	0.823	<b>1.000</b>	0.522
제주	0.780	0.555	0.419	0.759	0.587	0.480	0.435	0.794	0.693	0.783	0.380	0.599	0.591	0.451	0.522	<b>1.000</b>
전국	0.933	0.750	0.616	<b>0.936</b>	<b>0.424</b>	0.527	0.603	0.934	0.861	0.865	0.460	0.444	0.429	0.647	0.712	0.763
minRHS $\theta$ :	0.067 광주, 대구															

〈표 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간 동질성( $RHS_{\theta}$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b>1.000</b>	0.873	0.660	0.965	0.524	0.740	0.582	0.966	0.874	0.895	0.673	0.582	0.524	0.579	0.694	0.764
부산	0.873	<b>1.000</b>	0.777	0.895	0.427	0.709	0.680	0.898	0.936	0.936	0.656	0.470	0.416	0.696	0.806	0.659
대구	0.660	0.777	<b>1.000</b>	0.684	0.233	0.580	0.762	0.685	0.769	0.750	0.559	0.263	0.212	0.883	0.880	0.462
인천	0.965	0.895	0.684	<b>1.000</b>	0.501	0.746	0.598	0.974	0.897	0.919	0.682	0.558	0.499	0.602	0.715	0.747
광주	0.524	0.427	0.233	0.501	<b>1.000</b>	0.480	0.295	0.508	0.412	0.445	0.422	0.815	0.868	0.165	0.304	0.615
대전	0.740	0.709	0.580	0.746	0.480	<b>1.000</b>	0.523	0.737	0.711	0.752	0.925	0.528	0.478	0.511	0.604	0.699
울산	0.582	0.680	0.762	0.598	0.295	0.523	<b>1.000</b>	0.607	0.647	0.653	0.495	0.274	0.249	0.761	0.821	0.401
경기	0.966	0.898	0.685	0.974	0.508	0.737	0.607	<b>1.000</b>	0.894	0.916	0.671	0.561	0.504	0.604	0.720	0.743
강원	0.874	0.936	0.769	0.897	0.412	0.711	0.647	0.894	<b>1.000</b>	0.931	0.660	0.465	0.407	0.687	0.783	0.666
충북	0.895	0.936	0.750	0.919	0.445	0.752	0.653	0.916	0.931	<b>1.000</b>	0.698	0.494	0.438	0.668	0.776	0.690
충남	0.673	0.656	0.559	0.682	0.422	0.925	0.495	0.671	0.660	0.698	<b>1.000</b>	0.469	0.420	0.498	0.573	0.640
전북	0.582	0.470	0.263	0.558	0.815	0.528	0.274	0.561	0.465	0.494	0.469	<b>1.000</b>	0.857	0.187	0.320	0.699
전남	0.524	0.416	0.212	0.499	0.868	0.478	0.249	0.504	0.407	0.438	0.420	0.857	<b>1.000</b>	<b>0.139</b>	0.276	0.639
경북	0.579	0.696	0.883	0.602	0.165	0.511	0.761	0.604	0.687	0.668	0.498	0.187	0.139	<b>1.000</b>	0.830	0.382
경남	0.694	0.806	0.880	0.715	0.304	0.604	0.821	0.720	0.783	0.776	0.573	0.320	0.276	0.830	<b>1.000</b>	0.497
제주	0.764	0.659	0.462	0.747	0.615	0.699	0.401	0.743	0.666	0.690	0.640	0.699	0.639	0.382	0.497	<b>1.000</b>
전국	0.935	0.917	0.710	0.950	0.497	0.755	0.641	<b>0.957</b>	0.902	0.939	0.691	0.543	<b>0.489</b>	0.629	0.750	0.723
minRHS $\theta$ :	0.139 전남과 경북															

〈표 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간 동질성( $RHS_{\theta}$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b>1.000</b>	0.825	0.557	0.900	0.436	0.972	0.498	0.403	0.961	0.765	0.865	0.915	0.579	0.585	0.484	0.759	0.915
부산	0.825	<b>1.000</b>	0.690	0.811	0.276	0.834	0.594	0.484	0.848	0.923	0.929	0.905	0.419	0.422	0.628	0.916	0.853
대구	0.557	0.690	<b>1.000</b>	0.607	0.143	0.553	0.854	0.753	0.566	0.760	0.624	0.626	0.273	0.261	0.828	0.761	0.555
인천	0.900	0.811	0.607	<b>1.000</b>	0.460	0.886	0.559	0.473	0.888	0.770	0.823	0.872	0.600	0.603	0.536	0.778	0.828
광주	0.436	0.276	0.143	0.460	<b>1.000</b>	0.419	0.179	0.172	0.406	0.237	0.308	0.358	0.838	0.849	0.080	0.242	0.362
대전	0.972	0.834	0.553	0.886	0.419	<b>1.000</b>	0.487	0.389	0.983	0.768	0.881	0.918	0.560	0.568	0.487	0.765	0.931
울산	0.498	0.594	0.854	0.559	0.179	0.487	<b>1.000</b>	0.872	0.496	0.662	0.530	0.553	0.301	0.279	0.724	0.654	0.479
세종	0.403	0.484	0.753	0.473	0.172	0.389	0.872	<b>1.000</b>	0.397	0.548	0.422	0.449	0.275	0.249	0.661	0.544	0.375
경기	0.961	0.848	0.566	0.888	0.406	0.983	0.496	0.397	<b>1.000</b>	0.782	0.895	0.929	0.546	0.555	0.502	0.780	0.933
강원	0.765	0.923	0.760	0.770	0.237	0.768	0.662	0.548	0.782	<b>1.000</b>	0.854	0.847	0.383	0.380	0.678	0.940	0.786
충북	0.865	0.929	0.624	0.823	0.308	0.881	0.530	0.422	0.895	0.854	<b>1.000</b>	0.925	0.447	0.455	0.573	0.852	0.904
충남	0.915	0.905	0.626	0.872	0.358	0.918	0.553	0.449	0.929	0.847	0.925	<b>1.000</b>	0.504	0.507	0.549	0.833	0.923
전북	0.579	0.419	0.273	0.600	0.838	0.560	0.301	0.275	0.546	0.383	0.447	0.504	<b>1.000</b>	0.943	0.189	0.381	0.505
전남	0.585	0.422	0.261	0.603	0.849	0.568	0.279	0.249	0.555	0.380	0.455	0.507	0.943	<b>1.000</b>	0.190	0.382	0.512
경북	0.484	0.628	0.828	0.536	<b>0.080</b>	0.487	0.724	0.661	0.502	0.678	0.573	0.549	0.189	0.190	<b>1.000</b>	0.705	0.484
경남	0.759	0.916	0.761	0.778	0.242	0.765	0.654	0.544	0.780	0.940	0.852	0.833	0.381	0.382	0.705	<b>1.000</b>	0.772
제주	0.915	0.853	0.555	0.828	0.362	0.931	0.479	0.375	0.933	0.786	0.904	0.923	0.505	0.512	0.484	0.772	<b>1.000</b>
전국	0.921	0.867	0.631	<b>0.939</b>	<b>0.409</b>	0.912	0.570	0.475	0.920	0.820	0.878	0.930	0.551	0.554	0.558	0.820	0.872
minRHS $\theta$ :	0.080 광주-경북																

### 3.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실시된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의 선거라 할 수 있다. 선거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민주화 이후의 총선에서 한국 정당 사상 가장 많은 180석을 획득한다. 180석은 국회의원 정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대여당 단독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의석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영남지역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충청 지역 등에서 완패하며 84석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게 된다.

아래 〈표 8〉에서 보듯 제21대 총선은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숫값( $RSN_{\theta}(v)$ )이 0.878로 높은 수준의 전국화를 이룬 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제20대와 마찬가지로 제21대 총선에서도 충청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정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전(0.961), 충남(0.964), 충북(0.930) 지역의 전국화 값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선거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구·경북의 지지가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영호남 지역간의 동질성이 크게 개선되어 나타났다.<sup>27)</sup> 이를 반영하

27) 제20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와 경북지역에서의 득표율이 각각 18.8%와 8.2%로 나타난 반면, 제21대 총선에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8.9%와 25.4%를 획득했다.

듯, 아래 <표 9>에 나타난 최소 동질성 지수값( $\min RHS_{\theta}$ )은 광주와 경북 사이에서 0.259로 나타나, 영호남 지역 간 이질성이 가장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제21대~제22대 총선의 지역 및 지역체계의 전국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지역구수	유효투표비율	RNS $\theta$	지역	지역구수	유효투표비율	RNS $\theta$
서울	49	0.20	<b>0.969</b>	서울	48	0.19	<b>0.984</b>
부산	18	0.07	0.878	부산	18	0.07	0.884
대구	12	0.05	0.726	대구	12	0.04	0.634
인천	13	0.05	0.957	인천	14	0.06	0.975
광주	8	0.03	0.561	광주	8	0.03	0.599
대전	7	0.03	0.961	대전	7	0.03	0.958
울산	6	0.02	0.855	울산	6	0.02	0.828
세종	2	0.01	0.913	세종	2	0.01	<b>0.585</b>
경기	59	0.25	0.961	경기	60	0.26	0.956
강원	8	0.03	0.923	강원	8	0.03	0.914
충북	8	0.03	0.930	충북	8	0.03	0.975
충남	11	0.04	0.964	충남	11	0.04	0.984
전북	10	0.04	<b>0.556</b>	전북	10	0.03	0.636
전남	10	0.04	0.564	전남	10	0.04	0.613
경북	13	0.05	0.687	경북	13	0.05	0.656
경남	16	0.07	0.832	경남	16	0.06	0.879
제주	3	0.01	0.964	제주	3	0.01	0.888
전국	253	1		전국	254	1	
		RSN $\theta$ :	0.835			RSN $\theta$ :	0.821
		RSN $\theta$ (v):	<b>0.878</b>			RSN $\theta$ (v):	<b>0.885</b>
		minRNS $\theta$ (v):	0.556			minRNS $\theta$ (v):	0.585
		maxRNS $\theta$ (v):	0.969			maxRNS $\theta$ (v):	0.984

제21대 총선은 선거제도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선거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후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인해, 이 제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갈등은 그 어느 선거보다도 크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양대 정당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고, 지역구 득표가 두 정당에 집중되면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 점유율은 91%에 달했다. 이는 두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고 고르게 분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sup>28)</sup>

28) 다만 이러한 전국화 수준의 상승을 곧바로 지역주의 약화나 1인 2투표제의 직접적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21대와 제22대 총선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주의 양상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치러진 선거로, 사실상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녔다. 제22대 총선은 2022년 말 이태원 참사,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운영,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련의 국정 논란과 실책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가던 가운데 치러졌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는 등 범야권 정당이 총 192석을 차지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머물러 헌법 개정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유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양한 정당에 투표가 분산된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거대 양당 중심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표 행태는 결과적으로 지역구 득표에서 양당의 점유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95.6%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제22대 총선은 <표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체계의 전국화 지수( $RSN_{\theta}(v)$ ) 값이 0.885로 나타나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다. 지역의 전국화값( $RNS_{\theta}$ )의 최대값(서울 = 0.984)과 최소값(세종 = 0.585) 간의 차이 또한 역대 가장 좁혀진 것에서도 제22대 총선이 높은 수준의 전국화를 이룬 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2대 총선 역시 충청권을 대표하는 지역정당의 부재로 대전(0.958), 충북(0.975), 충남(0.984) 등 충청권의 전국화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정당을 중심으로 표심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 간 이질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총선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질성이 크다고 평가되던 영호남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표 10>의 최소 동질성 지수( $\min RNS_{\theta}$ )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와 경북 사이의 지

---

강하게 작동하였으며, 선거 과정에서 정권 평가와 전국 단위 진영대결 구도가 선거를 강하게 주도하였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위성정당의 등장과 이에 따른 양당 간 갈등 심화는 전국적 차원의 정치적 대립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치환경은 한 심사자의 적절한 지적대로 유권자들이 지역적 균열보다 전국적 진영 구도 속에서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양당의 득표가 전국적으로 보다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과거보다 상승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양당 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현상은 지역주의 약화뿐 아니라 정치 갈등의 중심축이 지역균열에서 전국 단위 진영대결로 이동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 차이는 0.238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호남 간 정치적 이질성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영남 내에서도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과 호남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20대 총선의 최소 동질성 지수는 광주-부산 0.276, 울산 0.179, 경남 0.242, 전남-부산 0.422, 울산 0.279, 경남 0.382였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21대에서는 광주-부산 0.442, 울산 0.425, 경남 0.395, 전남-부산 0.445, 울산 0.430, 경남 0.403으로 상승하였다. 이어 제22대에서는 광주-부산 0.487, 울산 0.458, 경남 0.478, 전남-부산 0.502, 울산 0.473, 경남 0.494로 나타나, 부울경과 호남 간 동질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선 논의가 1인 2투표제의 전국화 정도를 역대 선거별로 통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라면, 공시적 관점에서는 해당 선거를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하여 지역주의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제17대부터 제20대 총선까지를 비교하면, 비례대표 선거의 지역체계 전국화지수( $RSN_{\theta}(v)$ )가 지역구 선거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7대는 지역구 0.835, 비례 0.853, 제18대는 지역구 0.773, 비례 0.799, 제19대는 지역구 0.831, 비례 0.868, 제20대는 지역구 0.821, 비례 0.877로서 비례대표의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21대 선거에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오히려 지역구선거의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수값이 더 높게 나타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선거의 지역체계 전국화지수값  $RSN_{\theta}(v)$ 은 0.878이고, 비례대표 선거는 0.877로 지역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이어진다. 제22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선거의 지역체계 전국화지수값은 0.885이고, 비례대표 선거의 지수값은 0.883으로 나타났다.

제21대와 제22대 총선의 이러한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하에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거대 양당에 집중적으로 투표함으로써 양당 중심의 정당지지 분포가 전국적으로 매우 고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1인 2투표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특성과 이에 대응한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행태는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정치의 전국화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간 동질성( $RHS_{\theta}$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b>1.000</b>	0.864	0.704	0.966	0.575	0.982	0.840	0.931	0.989	0.896	0.922	0.952	0.561	0.573	0.664	0.811	0.981
부산	0.864	<b>1.000</b>	0.833	0.842	0.442	0.875	0.945	0.797	0.856	0.881	0.939	0.911	0.437	0.445	0.789	0.935	0.853
대구	0.704	0.833	<b>1.000</b>	0.689	0.292	0.712	0.842	0.640	0.695	0.767	0.774	0.752	0.309	0.306	0.952	0.890	0.696
인천	0.966	0.842	0.689	<b>1.000</b>	0.593	0.951	0.820	0.951	0.971	0.893	0.897	0.930	0.583	0.592	0.650	0.796	0.982
광주	0.575	0.442	0.292	0.593	<b>1.000</b>	0.562	0.425	0.640	0.582	0.519	0.499	0.529	0.870	0.932	0.259	0.395	0.583
대전	0.982	0.875	0.712	0.951	0.562	<b>1.000</b>	0.849	0.918	0.977	0.891	0.934	0.959	0.546	0.559	0.671	0.819	0.967
울산	0.840	0.945	0.842	0.820	0.425	0.849	<b>1.000</b>	0.775	0.832	0.860	0.907	0.883	0.421	0.430	0.799	0.933	0.832
세종	0.931	0.797	0.640	0.951	0.640	0.918	0.775	<b>1.000</b>	0.940	0.851	0.854	0.885	0.622	0.636	0.602	0.748	0.942
경기	0.989	0.856	0.695	0.971	0.582	0.977	0.832	0.940	<b>1.000</b>	0.887	0.914	0.943	0.567	0.570	0.655	0.803	0.985
강원	0.896	0.881	0.767	0.893	0.519	0.891	0.860	0.851	0.887	<b>1.000</b>	0.897	0.919	0.536	0.531	0.736	0.859	0.893
충북	0.922	0.939	0.774	0.897	0.499	0.934	0.907	0.854	0.914	0.897	<b>1.000</b>	0.963	0.488	0.499	0.731	0.880	0.910
충남	0.952	0.911	0.752	0.930	0.529	0.959	0.883	0.885	0.943	0.919	0.963	<b>1.000</b>	0.521	0.530	0.711	0.859	0.941
전북	0.561	0.437	0.309	0.583	0.870	0.546	0.421	0.622	0.567	0.536	0.488	0.521	<b>1.000</b>	0.922	0.284	0.401	0.571
전남	0.573	0.445	0.306	0.592	0.932	0.559	0.430	0.636	0.570	0.531	0.499	0.530	0.922	<b>1.000</b>	0.276	0.403	0.582
경북	0.664	0.789	0.952	0.650	<b>0.259</b>	0.671	0.799	0.602	0.655	0.736	0.731	0.711	0.284	0.276	<b>1.000</b>	0.848	0.657
경남	0.811	0.935	0.890	0.796	0.395	0.819	0.933	0.748	0.803	0.859	0.880	0.859	0.401	0.403	0.848	<b>1.000</b>	0.804
제주	0.981	0.853	0.696	0.982	0.583	0.967	0.832	0.942	0.985	0.893	0.910	0.941	0.571	0.582	0.657	0.804	<b>1.000</b>
전국	<b>0.969</b>	0.878	0.726	0.957	0.561	0.961	0.855	0.913	0.961	0.923	0.930	0.964	<b>0.556</b>	0.564	0.687	0.832	0.964
minRHS $\theta$ :	0.259 광주-경북																

〈표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간 동질성( $RHS_{\theta}$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b>1.000</b>	0.880	0.631	0.982	0.599	0.962	0.821	0.581	0.960	0.913	0.976	0.989	0.638	0.612	0.651	0.876	0.892
부산	0.880	<b>1.000</b>	0.747	0.863	0.487	0.844	0.918	0.612	0.842	0.959	0.903	0.890	0.522	0.502	0.763	0.425	0.774
대구	0.631	0.747	<b>1.000</b>	0.613	0.238	0.595	0.764	0.585	0.592	0.717	0.654	0.641	0.271	0.259	0.942	0.753	0.523
인천	0.982	0.863	0.613	<b>1.000</b>	0.617	0.979	0.806	0.576	0.977	0.895	0.959	0.972	0.655	0.629	0.634	0.859	0.909
광주	0.599	0.487	0.238	0.617	<b>1.000</b>	0.636	0.458	0.345	0.637	0.513	0.576	0.590	0.943	0.925	0.262	0.478	0.705
대전	0.962	0.844	0.595	0.979	0.636	<b>1.000</b>	0.790	0.575	0.988	0.876	0.939	0.952	0.674	0.647	0.616	0.840	0.926
울산	0.821	0.918	0.764	0.806	0.458	0.790	<b>1.000</b>	0.609	0.788	0.880	0.839	0.828	0.486	0.473	0.771	0.893	0.726
세종	0.581	0.612	0.585	0.576	0.345	0.575	0.609	<b>1.000</b>	0.566	0.608	0.591	0.583	0.362	0.342	0.592	0.614	0.526
경기	0.960	0.842	0.592	0.977	0.637	0.988	0.788	0.566	<b>1.000</b>	0.874	0.937	0.950	0.676	0.649	0.613	0.838	0.929
강원	0.913	0.959	0.717	0.895	0.513	0.876	0.880	0.608	0.874	<b>1.000</b>	0.936	0.923	0.551	0.528	0.735	0.963	0.805
충북	0.976	0.903	0.654	0.959	0.576	0.939	0.839	0.591	0.937	0.936	<b>1.000</b>	0.986	0.614	0.590	0.674	0.900	0.868
충남	0.989	0.890	0.641	0.972	0.590	0.952	0.828	0.583	0.950	0.923	0.986	<b>1.000</b>	0.628	0.603	0.614	0.886	0.882
전북	0.638	0.522	0.271	0.655	0.943	0.674	0.486	0.362	0.676	0.551	0.614	0.628	<b>1.000</b>	0.912	0.296	0.515	0.745
전남	0.612	0.502	0.259	0.629	0.925	0.647	0.473	0.342	0.649	0.528	0.590	0.603	0.912	<b>1.000</b>	0.289	0.494	0.714
경북	0.651	0.763	0.942	0.634	0.262	0.616	0.771	0.592	0.613	0.735	0.674	0.661	0.296	0.289	<b>1.000</b>	0.772	0.545
경남	0.876	0.425	0.753	0.859	0.478	0.840	0.893	0.614	0.838	0.963	0.900	0.886	0.515	0.494	0.772	<b>1.000</b>	0.769
제주	0.892	0.774	0.523	0.909	0.705	0.926	0.726	0.526	0.929	0.805	0.868	0.882	0.745	0.714	0.545	0.769	<b>1.000</b>
전국	<b>0.984</b>	0.884	0.634	0.975	0.599	0.958	0.828	0.585	0.956	0.914	0.975	0.984	<b>0.636</b>	0.613	0.656	0.879	0.888
minRHS $\theta$ :	0.238 광주-대구																

#### I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제17대 총선부터 제22회 총선까지의 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주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아래 <그림 1>의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숫값

( $RNS_{\theta}(v)$ )과 <그림 2>의 최소 동질성지숫값( $\min RRS_{\theta}$ ) 등을 통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8대 총선을 제외하면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총선은 대체로 이전의 1인 1표제 시기보다 높은 수준의 전국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1인 2투표제의 직접적인 효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동일한 1인 2투표제하에서도 선거별 전국화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제도 자체보다 선거 당시 정치환경과 정당 경쟁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인 2투표제는 지역주의 완화를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독립적 요인이자기보다, 정치적 조건과 결합할 때 전국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혹은 촉진 요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체계의 전국화( $RNS_{\theta}(v)$ )지수값 변화

둘째,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수값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총선 중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1당과 제2당의 경쟁이 치열하여 양당 점유율을 높았던 제17대, 제19대, 그리고 제21~22대 총선은 제1당(제17대 열린우리당, 제19대 새누리당, 제21~22대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제17대 한나라당, 제19대 민주통합당, 제21대 미래통합당, 제22대 국민의힘)의 지지가 전국에서 고르게 나타나면서 지역체계의 전국화지숫값( $RNS_{\theta}(v)$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특성과 이에 대응한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행태는 결과적으로 정치의 전국화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개별 지역의 전국화지수값( $RNS_{\theta}$ )을 통시적으로 보면, 지역의 전국화값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며,  $RNS_{\theta}$ 의 값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 전남,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1인 2투표제로 실시된 선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전국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바는, 최근의 세 차례의 선거인 제20대~제22총선에서 충청권은 지역을 대표할 지역연고 정당의 약화 혹은 부재로 이들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편중화가 약화되면서 상당한 전국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향을 표출할 지역연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시적 지역주의가 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 2>의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의 최소 동질성지수값( $\min RNS_{\theta}$ )의 추이를 살펴보면, 1인 2투표제를 비롯하여 모든 선거에서 영호남이 지역 간의 지지율 분포가 가장 상이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선거의 최소 동질성지수값( $\min RNS_{\theta}$ ) 변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제도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지역주의와 선거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함의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가 선거제도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는 1인 2투표제 도입 이후 지역체계 전국화지수값( $RNS_{\theta}(v)$ )이 이전 1인 1투표 선거보다 크게 개

선되고, 영호남 간 최소동질성 지수가 개선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 전국화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낸 것은 제도변화가 정당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거시적 지역주의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주의를 설명함에 있어 제도적 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경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당체계 구조와 ‘정치적 공급’ 요인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의 정도가 지역정체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체계의 구조와 정치적 공급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의 약진으로 충청권의 전국화지수가 급격히 하락한 반면, 제20대 이후 충청권 지역정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의 전국화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주의 연구는 유권자라는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정당이라는 정치적 공급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호남 대립 구조의 완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주요 균열구조인 지역주의(투표성향)가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최소동질성 지수( $\min RHS_{\theta}$ )의 개선과 부울경·호남 간 동질성의 상승은 전통적 지역주의 균열 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가 과거의 배타적 지역 균열 중심 구조에서 점차 전국적 정당 경쟁 구조로 이행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지역주의의 구조적 약화가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 재편 과정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전국화의 진전이 반드시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 지역체계 전국화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동시에 지역구 득표에서 양대 정당의 점유율 역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국화가 다당체제와 결합하기 보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와 양당 집중 현상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1인 2투표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거시적 지역주의 완화와 정치의 전국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화는 양당 중심 경쟁 구조의 강화 및 전략적 투표와 결합하여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이 정당체계의 구조적 재편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1인 2투표제의 도입은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을 완화하여 정당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며, 민주화 이후 한국선거를 사실상 지배해온 지역주의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서 정치권 및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정치에서 1인 2투표제도의 선거제도 변화가 가져온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별 정당의 득표 분포와 관련된 현상인 거시적 차원의 지역주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거시적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미시적 차원의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전국화 정도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의가 선거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주의의 원인, 해소 방법 등 지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간과해 왔던 지역주의 지수를 통해 한국의 1인 2투표제 하에서의 지역주의 정도와 그 제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명세. 2005.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 강명세. 2012. “제19대 총선 불평등한 선거제도와 전국적 정당체계의 도전”, 『국가전략』, 제18권 제2호.
- 노기우·정민석·이현우. 2018. “영·호남 지역주의의 지속과 변화: 지역감정에 대한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3호.
- 김기동·이재목. 2022. “한국 유권자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주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56권 제1호.
- 김정도. 2014. “선거와 정치의 전국화 : 제5회 지방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
- 도묘연. 2024. “영남 지역주의 투표의 분화와 지속: 22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당학회보』, 제23집 제4호.
-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서울: 후마니타스.
- 아사바 유키. 2008. “집합자료를 이용한 17대 대선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 이재목. 2025. “지역주의의 재편과 공간적 분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본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변화 가능성”, 『문화와 정치』, 제12권 제3호.
- 정준표. 2014.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의 지역주의의 효과”,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 정준표. 2015.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적 시작과 그 변화 양상”,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 정준표·김정도. 2013.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정치의 전국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7

권 제2호.

- 조영호·김용철. 2019. “다차원적 지역주의와 한국의 지역정당체제”, 『조사연구』, 제20권 제4호.
- Alemán, E. and Kellam, M. 2008. “The nationalization of electoral change in the Americas”, *Electoral Studies*, Vo1.27, no.2.
- Bochsler, D. 2010. “Measuring Party Nationalisation: A New Gini-Based Indicator that Corrects for the Number of Units”, *Electoral Studies* Vo1.9, no.1.
- Bochsler, D., Sean M. and Julian B. 2016. “An Ever Closer Union? The Nationalis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Switzerland, 1991~2015”,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Vo1.22, no.1.
- Chhibber, P. and Kollman, K. 2004. *The Formation of National Party Systems: Federalism and Party Competition in Canada, Great Brita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ivoronsky, Y. 2019. “The dual logic of Russia's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1.52, no.4.
- Golosov, G. 2016(a). “Party system nationalisation in Sub-Saharan Africa: Empirical evidence and an explanatory model”,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1.19, no.3.
- \_\_\_\_\_. 2016(b). “Factors of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1.37, no.2.
- \_\_\_\_\_. 2016(c).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The Problems of Measurement with an Application to Federal States”, *Party Politics*, Vo1.22, no.3.
- Harbers, I. 2017. “Spatial effects and party nationalization: The Geography of partisan support in Mexico”, *Electoral Studies*, Vo1.47.
- Jones, M. P. and Mainwaring, S. 2003. “The Nationalization of Parties and Party Systems: An Empirical Measure and an Application to the Americas”, *Party Politics*, Vo1.9, no.2.
- Koppel, M. and Diskin, A. 2009. “Measuring Disproportionality, Volatility, and Malapportionment: Axiomatization and Solutions”, *Social Choice and Welfare* Vo1.33.
- Morgenstern, S., Swindle, S. M., and Castagnola, M. 2009. “Party Nationalization and Institutions”, *Journal of Politics*, Vo1.71, no.4.
- Pruysers, S., Anthony, S. and Lucas, C. 2020. “Nation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the Canadian Party Syste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1.53, no.1.

【 Abstract 】

The degree and patterns of regionalism in  
Two-vote Mixed System in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Kim, Gyeongll · Kim, JeongDo

This paper analyzes the degree and patterns of regionalism in the 17<sup>th</sup>~22<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e measure degrees of regionalism by using indices such as regional nationalization, regional system nationalization, and homogeneity between two reg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between the 13th and the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 two-vote mixed system in the 17<sup>th</sup>~22<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s exerts a positive impact on the nationalization of politics. Second, when competition in elections between two major parties is dominant,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al system is likely to increase. Third, it shows that the strength of regionalism can be relaxed if there is no regionalist parties. Last, heterogeneity between Yeongnam and Honam was the greatest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wo-vote mixed system.

**Key Words** : Regionalism, Two-vote Mixed System, Nationalization of Politics, Regional Nationalization and Regional System Nationalization, Homogeneity between Two Regions.

---

• 논문투고일 : 2026년 4월 2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6년 5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5월 20일